



삼성증권 김태현 광주지점장은 국민은행과 휘닉스퍼디이를 추천종목으로 올렸다. 김 지점장은 국민은행을 추천한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산성장이 이루어지고 외환은행 인수시 부동산의 국내 1위 은행이라는 위상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휘닉스퍼디이는 PDP과우더의 실적호전에 힘입어 2분기 실적부진에서 탈피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뒀으며, 나노분야의 신규사업 진출로 장기적인 성장엔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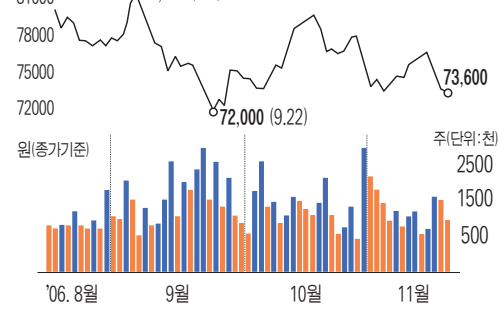
# '외환은 인수' 차질 없다

## ■ 국민은행

2001년 11월 주택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명실공히 국내 최대은행으로 탄생했다. 주주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24,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5%, 유보율 723%에서 앞수 있듯이 은행업종 평균인 ROE 22, BIS 비율 11%, 유보율 84%보다 건전성이 뛰어난 우량은행이다.

하지만 올들어 은행업종의 전반적인 실적둔화 속에 국민은행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국민은행의 3분기 실적둔화가 순이자 마진 축소와 수수료 이익 감소 등 주력 수익원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고 대손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4분기에도 실적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해 백팩리증권은 9만9천800원에서 7만9천400원으로, 신영증권은 8만9천원, 한누리증권은 8만5천원으로 내렸다.

## ■ 국민은행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산성장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구속논란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인수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 점에서 향후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래셋증권은 "론스타 사태가 국민은행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라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 기업인수를 통한 성장세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 나노분야 신규사업 진출

## ■ 휘닉스퍼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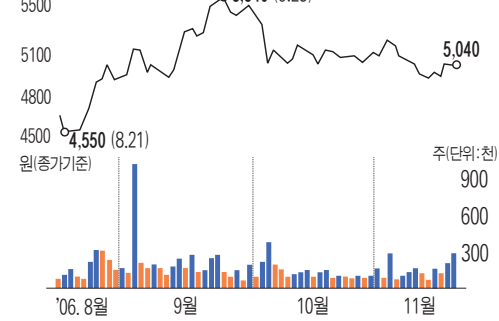
PDP과우더와 CRT부품 등 전자재료 소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코스닥 기업. 즉 형광체를 이용해 빛을 내는 자기발광표시 소자를 개발하는 회사로 PDP 패널과 TV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브라운관의 쇠퇴로 CRT부품소재 실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평판 디스플레이인 PDP 수요 증가로 PDP과우더 부문 실적은 호전되면서 3분기에도 매출액 187억원에 영업이익 42억원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특히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50인치급 PDP시장의 조기 확대 및 PDP 패널업체들의 신규법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품 개발로 인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같은 시장 지배적 위치로 인해 휘닉스퍼디이는 단기간에 압력속에서도 20%이상의 영업이익

## ■ 휘닉스퍼디이



이익을 유지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국내최초로 나노소재 사업의 주요 아이템인 전자와 차폐용 은(銀) 분말을 개발, 양산화에 성공해 향후 나노 관련 제품군 상용화 전망도 밝게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휘닉스퍼디이의 향후 주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나노분야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2010년대 중반이후엔 65세 이상이 소비주체

##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현재의 40~50대인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해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대열에 본격 합류하게 되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령소비자들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시니어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라는 보고서에서 2010년대 이후에는 고령자가 소비규모가 지난해 83조7천억원에서 130조원, 연금지급액은 2002년 2조2천억원에서 11조1천억원으로 급증해 높은 소비성향을 가진 고령 소비자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형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까지 급증하고, 고용창출효과도 2010년 41만명에서 2020년에는 66만명으로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도

# 국세청에 통보된다

종합소득 대상이 아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 가입자들이 얻는 지급이자나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도 올해 귀속분부터 국세청에 제출된다.

국세청은 올해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했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사나 법인으로부터 지급조서를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개인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세금융대저축 등 모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지급조서를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의 미제출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는 조세당국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과 맞물려 소득과약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집 비싸게 팔아준다"

# 부동산 사기 극성

집값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해 집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윤씨(42)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그가 인터넷에 매물로 내놓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제값보다 1천500만 원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수수료를 요구했다. 윤씨가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자 전화를 건 사람은 "내일까지 매수자로부터 돈을 완불받아 주겠다. 거래를 위해 '매매용 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며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감정평가기관을 소개해줬다.

소개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자 '감정평가기관'은 "확인서를 곧바로 발급해 주겠다"며 수수료로 150만 원을 요구했다. 급한 마음에 110만 원을 무통장 입금시켰지만 바로 보내준 다던 확인서는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윤씨는 다시 연락했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려왔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19일 "매매용 시세확인서라는 서류가 진짜 존재하느냐는 문의전화하루에 몇 건씩 걸려 온다"면서 "매매용 시세확인서는 양식조차 없는 유행 서류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 이혼녀 절반 이상 '살기 어려워졌다'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이혼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이혼한 뒤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서 모자보호시설 11곳에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이혼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혼의 이유로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58.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성격 차이(38.9%), 배우자의 부정부패(34.9%), 배우자의 구타(22.2%), 시댁과의 갈등(17.5%) 등을 들었다.

이혼 후 경제적 변화로 41.6%가 '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답했으며 16%는 '살기가 약간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5%는 '변함없다'고, 28%는 '살기가 나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81.5%는 이혼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고 8.9%만이 이혼한 것을 후회했다. 응답자의 82.6%는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였고, 이혼 후 배우자와 만나는 경우는 21.1%에 그쳤다. /연합뉴스

# 서민경제 '한파'

## 올 파산신청 10만명 넘어설 듯

서민경제에 한파가 예고가 되고 있다. 경기둔화와 일자리 창출 및 소득개선의 부진 등으로 개인파산신청이 연간기준으로 처음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 하위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 시작해 서민들이 돈 구하기 더 어려워질 듯하다.

19일 금융권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개인파산신청자 수는 8만5천4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708명의 3.6배에 달했고 지난해 전제 3만8천773명을 훨씬 초과했다.

실제 하위계층의 가계운영과 소득상황이 좋지 않고 일자리 창출속도도 부진하다. 전국 가구의 소득수준을 10개 그룹으로 나누면,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올해 3·4분기 소득증가율은 -3.2%였고 1분위 위 계층인 2분위의 소득증가율은 -0.9%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3분위와 4분위의 올해 3·4분기 소득증가율은 각각 1.7%와 2.1%였지만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줄어든 셈이다. 또 전국가구 중 소득 1~3분위의 올해 3·4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51.9%로 2.4분기의 50.2%와 작년 같은 기간의 50.7%보다 모두 늘어났다. 전국가구의 평균 적자가구 비율 역시 28.5%로 2·4분기 27.8%와 작년 3·4분기 28.4%보다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까지 늘어난 일자리는 월 평균 29만8천개로 정부가 하향조정된 목표치 35만개에 5만개 정도 미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도 뉴델리 '한국 채용·유학 박람회'

인도 뉴델리 '한국 채용·유학 박람회'가 열리는데 참가자들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박람회에는 1천여명이 몰렸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의 우수한 인력을 국내 대학·기업에 유치하기 위한 '한국 채용 및 유학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박람회에는 1천여명이 몰렸다. /연합뉴스

# 석유화학업체 사상최대 담합

## 공정위 적발, 10여개 업체 부당이익...최대 2천억 과징금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주력 제품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10여개에 달하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합성수지 등 주력 제품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판매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담합건은 국내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이 연루된 데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이어서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만 최대 2천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담합 행위로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지난해 8월 시멘트전화요금을 담합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에 부과한 1천100억원이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이 적발 대상에 포함됐으며, 우리 업체에 이처럼 카르텔(부당 공동행위)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당시에는 이 같은 행위가 업계의 관행이었

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여서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와 심리 절차 등을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공정위가 최근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출총제) 개편안 마련을 매듭짓는 뒤 본연의 업무인 '카르텔 규제 강화'를 선언한 뒤 나온 것이어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한국 농산물값 세계 최고

## 무역협회 분석, 높은 관세율 때문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농산물 가격은 높은 반면, 공산품 가격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주로 관세율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국제노동기구(ILO) 식료품 통계와 주요국 공산품 가격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최고기·감자·사과·당근 등 농산물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고기 가격은 kg당 48.09달러로 9.14달러인 미국의 5배, 4.68달러인 중국의 10배 수준이며, 세계에서 최고기 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격차이는 국내 생산규모, 시장의 경쟁성과 유통구조, 개방화 정도,

조세체계 등이 변수로 작용하지만 시장 개방과 관세율 수준이 각각의 소비자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개방된 미국과 캐나다의 소비자 가격이 낮은 반면, 개방에 소극적인 일본과 프랑스는 가격이 높았다. 한국은 감자의 관세율이 30%로 관세율 1%인 캐나다보다 가격 4배 정도 높고 사과도 45%의 관세율로 5%의 말레이시아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는 최고기나 당근 가격이 낮은 편인데 이는 캐나다가 대부분의 농산물에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 로도복권 (제207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수	당첨자 수	
031114313237	38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104,673,760	5
2	5개 숫자 일치	47,402,563	37
3	5개 숫자 일치	1,457,935	1,203
4	4개 숫자 일치	57,627	60,871
5	3개 숫자 일치	5,000	1,020,444

## 팝콘복권 (제30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7조 934907
2	5억	7조 934906
3	1천만	7조 934908
4	1백만	각조 02282
5	1만	각조 288
6	2천	각조 93
7	1천	각조 18
		각조 2
		각조 1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빅마켓	[광주/전남/전북]빅마켓 매장관리직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1	062-650-2205
한국유화	제조관련 생산직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21	062-973-0300
주.디자인클리	정규직 디자인팀 총원	대졸/경력무관	1,800~2,000	11/21	062-225-4063
한국공업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21	062-369-0790
퀵서비스(주)	웹디자인/기밀 및 분양광고홍보/주택관리업무지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1/22	062-572-5500
세로인종합건설	건설회사 현장 안전관리(광주)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2	02-383-2911
정밀교육문화(주)	정규직 회원관리/장원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23	062-514-7900
O나라	경리 및 사무관리 여사원	초대졸/경력2년	1,000~1,200	11/24	062-224-6073
한진디앤비	생산(기계조립,용접) 사무관리/기계설계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24	062-953-4510
LGO노텍	LGO노텍 사무지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24	062-950-0458
STS	[삼성생명콜센터] 운영직 및 상담원(B,용자TM)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5	02-2280-3529
동명치과의원	여사무원,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7	062-525-3033
랩코리아	LAPP 케ابل 기술영업(광주)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1/27	031-250-1001
심포니에너지(주)	태양광 시스템설계(건축)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62-949-774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